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반갑다 야구야!

2010 프로야구 잠실·문학·대구·사직서 오늘 개막

KIA, 두산과 2연전… 로페즈 vs 히메네스 '빅뱅'

긴 겨울잠에서 깬 프로야구가 야구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2010시즌 프로야구가 27일 오후 2시 전국 4개 구장에서 일제히 막이 오른다. '디펜딩 챔피언' KIA 타이거즈는 27일 잠실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대결을 갖고 V11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문학구장에서는 SK 와이번스와 한화 이글스가 만나고, 우승후보 삼성 라이온즈는 안방에서 LG 트윈스를 맞는다. 롯데 자이언츠와 넥센 히어로즈는 사직구장을 무대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잠실에서 열리는 KIA와 두산의 경기는 개막전 최대 빅매치다.

2연패에 도전하는 2009 챔피언 KIA와 변함없는 우승후보 두산의 대결은 '미리보는 한국시리즈'다.

마운드의 파워싸움은 잠실 개막전의 백미.

개막전 승리 사냥에 나서는 KIA와 두산은 용병 로페즈와 히메네스를 마운드에 포진시키고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

두 용병은 빠른볼과 싱커를 앞세워 기선 제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4승을 수확했던 한국시리즈 영웅 로페즈는 연습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변함없는 위력을 과시하며 올 시즌 다승왕에 도전하고 있다.

150㎞가 넘는 강속구를 보유한 히메네스는 두산이 올 시즌 우승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선발이다.

김상현·최희섭과 김현수·김동주로 대표되는 양팀 타선의 대결도 흥미롭다.

최희섭은 시범경기 9경기에 출전해 0.429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한층 매서워진 스윙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무릎부상으로 훈련량이 부족했던 김상현도 당초 우려와 달리 시범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쓸어담으며 괴력을 보여줬다.

'타격 기계' 김현수는 시범경기에서 천부적인 타격 재능을 발휘하며 상대팀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팬들 역시 가장 위협적인 선수로 김현수를 1위로 꼽고 있다.

김동주도 24일 LG와의 연습경기에서 비거리 135m의 큼직한 투런포를 기록하는 등 타선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양팀은 잠실 맞대결로 2009시즌 스타트를 끊었었다. 결과는 뒷심 대결에서 밀린 KIA의 완패였다.

개막전에서 2연패를 안고 돌아온 KIA는 4경기 만에 겨우 시즌 첫 승을 신고했었다.

로드리게스의 퇴출과 이대진의 부상으로 힘든 4월이 예고된 KIA에게 개막전 승패는 초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 개막전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만큼 승리가 간절하다.

힘과 힘이 맞붙는 투·타의 대결에서 어느 팀이 먼저 상대 마운드를 공략하느냐에 따라 양팀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6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광주일고와 신일고의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경기에서 8회초 신일고 주자 이정암이 투수 유창식의 견제에 1루로 귀루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광주일고 5번째 우승 노크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 신일고 꺾고 4강

'전통의 강호' 광주일고가 황금사자기 준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26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신일고와의 8강전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6-1로 승리했다.

대회 5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광주일고와 8차례 황금사자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신일고답게 초반 팽팽한 승부가 전개됐다.

광주일고의 공격이 진행된 1회말 기습번트로 출루한 백왕중이 투수 견제가 빠진틈을 타 3루까지 진루한 뒤 백세웅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왔다.

1-0으로 앞선 4회초 이번에는 광주일고의 실책이 나왔다. 1사 만루에서 마운드를 넘겨받은 에이스 유창식이 투수 앞 땅볼을 처리하다 공을 놓치면서 승부는 1-1 원점으로 돌아갔다.

5회말 허일의 적시타로 2-1로 도망간 광주일고는 8회말 승리를 확정짓는 방망이쇼를 펼쳤다.

1사에서 허일·김요셉·임영섭·유창식이 연달아 안타를 터트리며 4-1을 만들었다. 몸에 맞는 볼 두 개를 더해 밀어내기로 1점을 보태는 등 광주일고는 8회에만 4점을 뽑으며 신일고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4회 구원등판한 좌완 유창식은 5이닝을 1피안타 2사사구 5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대회 3승째를 챙겼다.

광주일고는 27일 오후 3시 경북고-제물포고전 승리팀과 결승행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화촉

▲최광은·장처님씨 차남 용호군 최종진·최기자씨 장녀 영순양=27일(토) 광주경복궁웨딩컨벤션 2층(미소홀)

▲김수웅·문금순씨 장남 기연군 이종신(전 고흥부군수)·박순금씨 장녀 소연양=27일(토) 오후 4시 30분 광주시 서구 농성동 메리어트 웨딩홀 2층(컨벤션홀)

부음

▲유효순씨 별세 염상헌·공헌·승헌·영애·영숙씨 모친상=발인 28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조외순씨 별세 강신유씨 모친상 강일랑씨 조모상=발인 27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 - 4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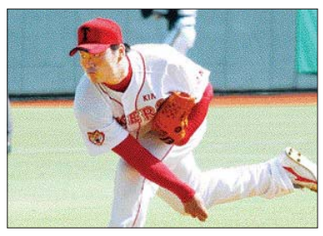
▲한형애씨 별세 양형열(현대교통)·정열(조대병원 성형외과)·대열·윤자·은희씨 모친상=발인 2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김귀례씨 별세 이오행·정식·정열·준수·춘심·춘임·인순·인숙씨 모친상=발인 27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재순씨 별세 정명주·승주·대관씨 모친상=발인 27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김진우 日 독립리그서 재기 노린다

KIA, 코리아 해치에 참가시켜



'풍운아' 김진우가 마운드에 복귀한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임의탈퇴' 신분인 투수 김진우를 일본 독립리그에 진출한 코리아 해치에 참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코리아 해치는 박철우 감독과 김해님 코치 등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칭스태프와 KIA에서 활동했던 내야수 손지환 등 19명의 선수로 구성된 팀으로 지난 2월 창단식을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진우는 내달 1일 일본으로 출국해 코리아 해치에 합류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무, 내일 제주와 홈경기

하위권에 처져 있는 광주 상무와 전남 드래곤즈가 승점 더하기에 나선다.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28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결을 벌인다. 같은 시각 전남 드래곤즈는 강릉종합경기장을 찾아 강원 FC와 2010 K-리그 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상무는 지난 부산과의 원정경기에서 0-2로 패하며 1승1무2패로 12위에 처져있다. 경남과의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전남도 1승2무1패로 10위에 그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